

센세이셔널리즘 생성과 변천

이광재

경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센세이셔널리즘은 뉴스보도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보도 경향이다. 1800 년대에 들어와서는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화, 산업화, 교통·통신의 발달, 교육의 보급으로 대중신문이 등장하자 신문은 더 많은 독자를 얻기 위해 센세이셔널리즘을 지면에 반영시켰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에 호소하여 독자의 흥미를 끌어당기는 보도방식으로서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뉴스보도 방법이다. 센세이셔널리즘은 원래가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는 것이므로 이것은 신문의 발생과 더불어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우리들이 매일 조석으로 보는 신문지면에 반영되고 있다. 다만 그것이 신문보도 방식의 하나로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이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I. 센세이셔널리즘의 개념과 기원

영어의 「sensationalism」은 우리말로 인기주의, 선정주의, 육욕주의, 쾌락주의, 육감주의, 관능주의, 감각주의 등으로 번역된다. 이 말은 원래 철학과 문학에서부터 유래되었으나 신문에서는 대중염가신문이 탄생한 1830년대 초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신문은 영리기업으로 존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많은 대중독자를 획득해야 한다. 그 많은 독자를 얻기 위한 수단 하나가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고, 호기심을 자아내는 인간흥미 본위의 내용을 신문에 게재하는 것이라고 이 당시의 신문인들은 생각하였다. 오늘날 우리들이 신문지상에서 매일 읽고 보는 살인사건, 화재, 범죄기사, 진담기문, 각종 기관의 악폐와 부정을 폭로하는 기사 등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으나 당시처럼 장황한 정치연설 등으로 계면을 가득 채웠던 시절에는 큰 변혁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신문에서의 센세이셔널리즘에 대해서 미국의 신문사학자 모트(Frank L. Mott)는 「독자들의 감정을 흥분 시켜주는 내용과 그런 내용을 담은 뉴스 보도 방식(subject matter and treatment which excite the emotions of the reader)」,¹⁾ 또 「범죄, 재앙,

성 추문, 기문 등을 자세히 보도하는 것」²⁾이라고 정의했다. 에머리(Edwin Emery)도 「인간의 감정에 중점을 두는 뉴스보도방식」³⁾이라고 정의했다.

이렇게 볼 때 신문에서의 센세이셔널리즘은 우리 말로는 선정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개념은 신문이 많은 독자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고, 호기심을 자아내는 인간흥미 본위의 내용 즉 살인사건, 범죄기사, 재앙, 진담기문, 각종 기관의 악폐와 부정을 폭로하는 기사를 집중적으로 재미있게 보도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이러한 선정주의적 보도방식은 풀리처(Pulitzer)의 「World」, 다나(Dana)의 「Sun」, 「Chicago Times」, 「New York Daily News」, 베네트(Bennett)의 「Herald」 등 1860년대 전후의 미국신문을 통해서 본격화되었으나, 1690년에 창간된 「Publick Occurrences」와 1704년에 창간된 「Boston News-Letter」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즉 「Publick Occurrences」는 프랑스 왕의 부도덕성을 가십으로 다루었는가 하면, 또 최근에 일어난 프랑스와 인디언들의 전쟁에서 특히 영국편의 인디언 동맹군들이 프랑스 포로들을 야만적으로 다루었다는 것을 비난하는 선정적인 기사를 실었다.⁴⁾

「Boston News-Letter」는 전자보다도 더 본격적으로 선정적인 기사를 게재하였다. 배의 도착, 사망, 설교, 정치적 행사, 폭풍, 인디언들의 약탈, 해적들의 사약행위, 각종 위작행위, 화재, 사고, 재판 등에 관한 기사를 짧게 보도하였다. 발행인인 캠프벨(Campbell)은 여러 주요지역에 특파원을 파견하여 상기한 주변적이고 인간흥미위주의 기사를 수집하였다.⁵⁾ 코헤코 근처의 한 온천지역에서 있었던 노예 하녀의 생포에 관한 기사는 당시의 독자들에게는 대단히 특이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기사는 한 소녀가 그 온천에서 만난 젊은이와 오래 머물고자 변명키 위해 거짓으로 꾸며낸 기사임이 훗날 밝혀졌다. 신문과 경찰이 고통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이 신문이 다룬 가장 센세이셔널한 뉴스는 해적과 해적행위에 관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1719년 3월 2일자의 동지는 해적 Blackbeard(Teach)가 해적선의 갑판 위 결투에서 어떻게 살해되었는가를 흥미진진하게 다루어 독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일부 독자들은 이미 유언비어, 가십, 험담 등을 일삼는 뉴스 장사꾼들이 만들어내는 비싼 신문을 사볼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센세이셔널리즘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렇게 본다면 신문에서의 센세이셔널리즘은 뉴스수집방법이 비조직적이었던 18세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해 왔음을 알 수가 있다.

II. 센세이셔널리즘의 변천과정

1. 보도방식의 변천

센세이셔널리즘은 뉴스보도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보도 경향이다. 따라서 이것의 정확한 위치와 정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신문보도의 방식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신문이 가장 잘 발달된 미국의 경우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신문의 보도경향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미국의 초창기 신문은 거의 대부분이 영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1690 년과 1700 년대 초반의 신문들은 사건을 간단히 보도하는 게시적인 사실보도에 그쳤고, 독립 혁명기에는 혁명을 대내외에 선전하는 선전보도를 했으며, 독립 후에는 정당을 형성하여 파당적 논쟁에 주안점을 두어 소위 당파적 편향보도방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1800 년대에 들어와서는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화, 산업화, 교통·통신의 발달, 교육의 보급으로 대중신문이 등장하자 신문은 더 많은 독자를 얻기 위해 센세이셔널리즘을 지면에 반영시켰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에 호소하여 독자의 구미를 끌어당기는 보도방식으로서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뉴스보도 방법이었다. 폭력, 성범죄, 화재, 살인사건, 부정부패 등 인간사회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여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호기심과 경각심을 갖고 신문을 읽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독자는 많이 얻었으나 부정확하고 불공평한 보도와 허위보도 등의 주관적 보도로 인하여 뉴스의 주인공은 물론 사건과 관련되는 많은 사람들의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를 야기시켜 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이러한 사태 발전에 따라 새로운 객관적 보도방식이 나타났다. 이의 선구는 「New York Times」였다. 1930 년대에 들어와서는 사건의 원인과 배경설명에 중점을 두는 해설보도(interpretative reporting)가 유행되었다. 1930 년대의 뉴딜정책으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변혁이 급격하여 단순한 사건보도만으로는 실상을 정확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전문기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1960 년대와 1970 년대에 들어와서는 발굴보도(investigative reporting)가 유행되었는데 이것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더욱 각광을 받았다. 발굴보도는 국방성이나 CIA, FBI 등 과거에는 신문이 별로 접근하지 못했던 권력기관의 비밀이나 비위를 파헤쳐 보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한 사건의 내막을 정확히 심도 있게 진위를 보도하는 것이다. 이런 보도는 1900 년대의 추문보도(muckraking reporting)에서도 이미 그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최근에는 앞에 열거한 여러 보도방식의 장점을 선택적으로 차용한 평가보도(evaluative reporting)가 활용되고 있다. 이것은 기자들에게 당국자가 공표한 보도자료 뒤에 숨어있는 배경이 무엇인가를 찾아냄은 물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일이 어찌하여, 어디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며 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를 보도하는 것이다. 빙산의 일각보다는 빙산자체를 취재, 보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자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도 방식이다.⁶⁾

2. 센세이셔널리즘의 변천

상기한 바와 같이 보도방식의 변천과정을 통해서 볼 때 센세이셔널리즘은 역사상 어느 한 시점에서 유행된 한 유형에 지나지 않은 것 같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센세이셔널리즘은 원래가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이것은 신문의 발생과 더불어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우리들이 매일 조석으로 보는 신문지면에 반영되고 있다. 다만 그것이 신문보도 방식의 하나로 보편화되고 있기 예문에 독자들이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에머리(Emery)는 미국 신문의 센세이셔널리즘이 성행했던 역사적인 연대를 「센세이셔널리즘은 대중신문이 가장 크게 발전하는 시기에 나타난다. 1620년, 1833년, 1890년대 그리고 1920년대에 그 동안 경시되었던 대중이 센세이셔널리즘의 물결과 더불어 나타나기 시작했다」⁷⁾고 지적하고 있다. 환원하면 미국은 1830년대 초부터 시작된 엽가신문시대, 1890년대의 황색신문시대, 그리고 1920년대의 재즈저널리즘시대(타블로이드즘 시대)에 이 센세이셔널리즘이 가장 성행했던 것이다. 이 시기에 문제가 되었던 역사적 사건으로는 Fatty Arbuckle 재판, Hall-Mills 살인사건, Snyder-Gray 살인사건, Peaches Browning 얘기, Lindbergh 유괴사건, Leopold-Loeb 사건, Charlie Chapin 재판, Errol Flynn 강간 재판, Sam Sheppard 박사 살인재판, Manson 재판 등을 들 수가 있다.

각 나라마다 센세이셔널리즘이 신문에 반영된 역사적인 변천상은 각기 다르겠지만 미국신문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신문의 센세이셔널리즘의 변화상을 역사적 발전단계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엽가신문시대

가. New York Sun 의 센세이셔널리즘

미국에서 성공을 거둔 최초의 엽가신문은 1833년 9월 3일 데이(Benjamin H. Day)가 창간한 「New York Sun(It shines for All.)」이다. 이 신문은 4페이지 3단조로 된 소형(7과 1/2×10 인치-편지지만한 크기)신문으로 인쇄도 깨끗하고, 작은 활자로 뉴스를 자세하게 보도한 것이 특징이다. 이 신문은 창간 2개월 만에 2,000부, 그 후 다시 2개월 뒤에는 5,000부 그리고 창간 6개월 후에는 8,000부로 급증하였다. 그 이유는 신문값이 1부당 1센트로 저렴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종전의 여타 신문들이 취해왔던 정치기사 위주의 신문제작방법을 지양하고, 새로 등장한 공장노동자를 포함한 대중들이 원하는 진담기문과 폭력범죄 기사를 중심으로 하는 센세이셔널리즘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과 법원에서의 술주정꾼, 절도범, 폭행범, 교통사범 등에 관한 유머러스한 뉴스는 독자들의 큰 인기를 끌었다.

데이는 범죄기사의 재료를 얻기 위해 경찰과 법원에 많은 기자를 배치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인쇄공 출신인 George W. Wisner(humorous story writer)를 채용한 것이 성공의 큰 원인이 되었다.⁸⁾ 그는 매일 2 단 정도의 범죄 기사를 썼는데 독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는 이를 취재하기 위해 매일 새벽 4 시에 법원에 출근하였다.

인간흥미 위주의 뉴스보도에 중점을 둔 1835년 1월 3일자 동지에 실린 기사의 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⁹⁾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영국의 유명한 남작의 만아들인 한 젊은 신사가 대학에서 교육학 공부를 끝낸 후 고향에 돌아와 부모에게 인사를 드린 후 사교계에 진출, 즐거운 생활을 시작했다.」

이렇게 서두가 시작된 이 기사는 계속해서 이 멋진 청년이 자기 아버지의 정부와 어떻게 사랑에 빠졌는가를 묘사했다. 이 한 쌍은 결혼을 할 수 없게 되자 마침내 도망쳐 버렸고, 그 아들은 성난 남작에 의해 혈연의 관계를 끊게 되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사망하자 그 아들은 상속인이 되었다. 그의 동생은 형의 근친상간을 이유로 형을 비난하여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다. 이런 기사가 그날 동지의 1면에 가득 채워졌다.

「...그리고 우리의 영웅은 신부의 부드러운 앞가슴 위에서 포근히 쉬고있는 동안에 동생의 증오를 받은 그는 형제상간의 불의의 파멸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

고 이 기사는 계속해서 재미있게 기술되고 있으나 상속인의 결말은 내지 않고 있다. 기사에서 이름은 사용하지 않았다. 뉴스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최근(recent)」이라는 말은 사용했으나 이 기사는 완전히 픽션이었다.

그 다음 페이지의 양은 「경악한 사진(Shocking Accident)」이라는 제하에 19세의 청년이 어떻게 우물 속에 생매장되었는가를 기술하였다. 이밖에도 유머러스한 잡동사니 기사들이 많이 있었다. 예를 들면 「어제의 경찰서 (Police office Yesterday)」라는 제하에 전날밤 경찰서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도하였다.¹⁰⁾ 한 흑인여자가 경찰재판소 판사 앞에서 prosecute 와 prsotitute 라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게 증언거렸다는 식의 기사가 그런 것들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마가렛트 · 토마스가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다. 그 여자는 다시는 "맹세코"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하고 "맹세코"를 연발하였다. 구속.」

「윌리엄 · 러보이는 어젯밤 술에 취했는데 그것은 날씨가 지독히 더웠기 때문이었다. 아홉 잔의 브랜디를 마신 그는 만일 그가 한꺼번에 아홉 잔의 브랜디를 마시면 그 돈을 옆의 사람들이 갚아준다고 게임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치안판사가 그의 사생활을 간섭할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벌금 1 불의 형을 받았으나 돈이 없어 교도소로 직행 되었다.」

「브리짓 · 맥문은 술에 취해 러드로우가 53번지에 사는 엘리스 씨를 때렸다. 그 여자는 세 어린 고아의 어머니라고 말했다. 오! 하느님, 맙소사! 만일 그 여자가 감옥에 간다면 그들은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 구속.」

「빌 · 도티는 무서워서 술을 마셨으나 진정하지 못했다. 구속.」

「데니스 · 하트는 길거리에서 싸웠다. 구속.」¹¹⁾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이런 기사들은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유익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당시의 독자들에게는 연극만큼이나 재미있었고 인기가 있었다.

「선」지는 1835년에 록크(Richard Adams Locke)가 쓴 「Moon Hoax(1835. 8. 25일자)」라는 공상소설을 연재하여 무지한 노동자들의 인기를 집중시켰다. 이 해에 천왕성(Uranus)이 John Herschel 경에 의해 발견되어 항성에 관한 과학뉴스가 신문에 보도되었다. 이를 호기로 잡아 데이는 달 세계에 있는 괴이한 생물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였다. 이야기는 먼저 최고의 성능을 가진 렌즈의 구조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관측한 결과로서 달 세계의 여신과 동물의 생활을 자세히 풀이하였다. 클라이막스에 가서는

박쥐와 같은 형상을 한 달 세계의 남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었다. 그런데 일반독자는 그 과학적 술어의 교묘한 구사와 그 상세한 설명, 그리고 아름다운 필치에 매료되어 이 이야기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한다.¹²⁾

「선」지는 이밖에도 고론대언식의 과거의 사실을 지양하고 노름, 결투, 폭음, 나태 등의 악습을 타이르고 경계하는 식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을 사실로 집필했다. 그리고 뉴스도 간단, 명료하고 흥미롭게 기사화하였다. 그러나 이 신문은 전통적 권위기관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는 악취미와 야비성이 지나쳐 신문의 품위를 떨어뜨렸고 또한 범죄와 성추문 기사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뜻 있는 독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데이가 1837년에 이 신문을 팔아버린 것도 그 해에 있었던 경제불황으로 인한 경영의 불안이 이유의 하나가 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신문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해 신문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신문은 18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나타나는 뉴·저널리즘(New Journalism)에의 길목역할을 해주었다.

나. 헤럴드의 도덕전쟁

「선」지가 센세이셔널리즘으로 성공을 거두자 그 뒤를 이어 나온 것이 베네트(James Gordon Bennett)가 1835년 5월 6일에 창간한 뉴욕·헤럴드(New York Herald)였다. 그는 「셰익스피어가 희곡에서, 스코트가 소설에서, 밀턴과 바이런이 시에서 천재라면, 나는 신문에서 천재」¹³⁾라고 떠들었는가 하면 소크라테스, 루터, 그리고 모세가 그 분야에서 제일인자라면 자기는 신문에서의 나폴레옹이라고 호언장담한 인물이다. 그는 미국신문사에서 6대 신문인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순수한 기회주의(sheer opportunism)와 인도주의적 이상주의 (humanitarian idealism)의 언론철학을 반반씩 지니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처음에는 「백성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vox Populi vox dei)」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굳게 믿어 이것을 신문편집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오히려 당시 신문계에 유행되었던 센세이셔널리즘에 깊게 빠져버렸다.¹⁴⁾

그는 선(Sun)지를 모방하여 범죄기사와 성에 관한 기사를 지나칠 정도로 많이 취급하였다. 선지가 성적(sexy)인 신문이라면, 헤럴드는 센세이셔널한 신문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선정적인 신문을 만들었다.¹⁵⁾ 그 대표적인 기사는 1836년 4월 11일자 동지에 실린 Helen Jewett-Richard P. Robinson 살인 사건이었다. 「잔인 무도한 살인」(MOST ATROCIOUS MURDER)이라는 제하에 살인혐의자 로빈슨(Robinson)의 재판사건을 흥미진진하게 보도하였다.¹⁶⁾ 이 기사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창녀인 Jewett 이 어느날 자기 집에서 살해되어 시체가 불타버렸다. 그리고 Robinson 이라는 청년이 살인혐의로 체포되었다. 부유한 Robinson 은 모든 범행을 부인했다. 훗날 그는 무죄로 석방되었다. 」

이 기사는 여러 면에서 인간 흥미적인 요소가 많았다. 돈 많고 미남인 청년, 그의 여자 친구인 창녀, 잔인한 살인, 유곽에서의 시체 소각 기도. 그는 이 재판기사를 자세히 보도하고 심지어는 보스톤의 매음행위에 대해서도 배경까지를 조사, 보도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사를 호외로까지 발행했다. 엽기적 살인사건을 오락물화 시켜 헤럴드의 발행부수는 3 배로까지 증가되었다. 그 후 이 기사는 센세이셔널한 기사의 전형적인 것이 되었다.

헤럴드가 센세이셔널한 기사보도로 큰 성공을 거두자, 경쟁지였던 트랜스크립트(Transcript), 커리어와 인콰어러(Courier and Enquirer) 같은 신문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이들은 헤럴드가 과장되고 가공적인 범죄기사, 특히 이름도 밝히지 않는 부정한 성 스캔들 등을 이용하여 판매부수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헤럴드와 베네트에 대한 「도덕전쟁(moral war)」은 이러한 경쟁지들의 비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사건의 발단은 1840년 5월 베네트가 뉴욕 · 이브닝 · 시그널(New York Evening Signal ; 불구자인 Park Benjamin 이 1839년에 창간)이 재정난에 허덕이는 것을 보고 「신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공격한 데서부터 비롯되었다. 이브닝 · 시그널(Evening Signal)은 물론 이브닝 · 스타(Evening Star)와 「Courier and Enquirer」도 헤럴드 구독을 거부하고 베네트를 뉴욕에서 추방 시키자는 기사를 각 신문에 게재하였다. 이러한 반 헤럴드운동은 정치가, 증권중매인, 목사, 그리고 사회 저명 인사들의 지지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 영향은 보스톤, 필라델피아, 발티모어, 알바니 등지에도 미쳤다. 심지어는 바다 건너 영국의 신문들까지도 그를 비난하였다. 헤럴드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잉크를 바른 사탄」, 시그널은 「음란한 부랑자」, 「불결한 놈」 또는 「비열한 놈」이라고 하였다. 또 이브닝·스타는 「산적」, 「칠면조 같은 멍청이」라는 등 여러 가지로 그를 혹평하였다.¹⁷⁾

헤럴드는 이 전쟁으로 인하여 큰 타격을 받아 판매부수는 약 3분의 1 정도가 감소되었다. 이 도덕전쟁은 헤럴드가 성공을 거둔데 대한 경쟁지들의 시기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센세이셔널리즘이 보여준 또 하나의 좋은 실상이라고 하겠다.

다. 고급지의 출현

도덕전쟁으로까지 발전한 센세이셔널리즘은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때문에 이에 반기를 드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신문 즉 고급지를 탄생시키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호러스 · 그펠리(Horace Greeley)는 범죄와 성관계 기사의 홍수 속에서 신문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1841년 4월 10일에 뉴욕 · 트리뷴(New York Tribune)을 창간했다. 그는 서민대중을 위한 복리적 자본주의와 부의 공평한 분배의 원리를 신봉한 사람으로서 기존의 엽기신문들이 너무 선정주의에 치우치고 있어 일반 독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있었기 때문에 좀더 보수적이고 건전한 내용의 신문을 만들면 독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생각은 적중하였다.

그는 또 일반대중은 감정(emotionalism)과 이성(reason)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도 믿었다. 뿐 아니라 그는 1850년대의 사회주의사상 보급에도 몰두하여 칼 마르크스를 약 10년 동안 런던특파원으로 파견 시키기도 하였다. ¹⁸⁾ 이점에서 그는 사상적인 과오를 범하기는 했으나 농민들은 이 영향때문에 성경 다음에는 「Try-bune」 (농민독자가 만들어낸 별명)을 많이 읽었다고 한다.¹⁹⁾

그의 신문은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이며 매로는 무책임한 기사로 인해 비난을 받기도 했으나 범죄 기사를 거의 실지 않았으며 신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광고도 게재하지 않아 「위대한 도덕적 신문」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여하간에 그의 신문은 크게 성공하였다. 창간 3주 후에는 5,500부, 7주 후에는 11,000부 그리고 남북전쟁 직전에는 45,000부가 되었다. 그가 성공을 거둔 이면에는 Charles A. Dana, Henry J. Raymond, Margaret Fuller, Carl Schurz, Whitelaw Reid 등 많은 훌륭한 신문인들의 뒷받침이 있었다.

뉴욕 · 트리뷴이 창간된 지 10년 후인 1851년 9월 18일에 또 하나의 고급지인 뉴욕 · 타임즈(New York Times)가 전기한 Henry J. Raymond와 George Jones 그리고 Edward B. Wesley에 의해 창간되었다. 이것 역시 신문의 과도한 센세이셔널리즘의 소산이었다. 레이몬드는 성공을 거둔 트리뷴의 도덕적인 면과 선이나 헤럴드의 대중성을 합친 중도를 걷는 새로운 신문을 하나 만들면 크게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²⁰⁾ 그리하여 그는 도덕적이고 보수적인 경향을 유지하고, 런던 · 타임즈(London Times)를 모델로 하여 외신에 역점을 두면서 풍부한 뉴스와 공정한 보도로 신문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1833 년경에 시작된 신문의 센세이셔널리즘은 1860 년대 초에 이르러 선과 헤럴드 같이 범죄와 성에 중점을 두는 센세이셔널한 신문과 이에 반기를 든 트리뷴이나 뉴욕 · 타임즈와 같은 도덕적이고 보수적인 신문의 두 유형을 낳게 한 계기가 되었다.

(2) 황색신문시대

가. 사회적 배경

남북 전쟁 후 미국사회에 나타난 새로운 양상은 전후복구사업과 더불어 집중적 공업화, 기계화, 도시화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 있어서의 급진적인 변화였다. 정치적으로는 링컨이 이끄는 공화당의 온건파와 과격파가 대립하였고, 경제적으로는 물가의 폭등, 화폐개혁, 은행제도의 개혁 등 정치적인 문제가 산적하였다. 공직자들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높아 갔다. 이와 더불어 유럽으로부터 많은 이민이 몰려왔고, 농촌인구는 도시로 몰렸으며, 산업화는 예전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신문계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대중을 위한 신문은 범죄와 성관계 기사 등으로 독자의 인간적인 흥미에 계속 호소하는 한편 통신 · 교통 등의 새로운 기술을 이용, 취재와 보급면에도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다. 또 퍼스널 · 저널리즘(personal journalism)시대를 준비하는 중간 교량적 역할을 하는 Charles A. Dana 와 같은 인물들이 활약하는 그런 시대였다.²¹⁾ 그러나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신문들이 정당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나 독립지, 중립지로 돌변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이 신문들은 종전의 논설적인 의견, 비판과 정부의 정책시행에 대한 편견 보도를 지양하고 생활주변의 인간적인 흥미를 자아내는 기사와 폭 넓은 뉴스보도로의 뉴스개념을 바꿔놓았다. 종전의 정치인들의 손에 의해 좌우되었던 신문들이 신문인들의 손으로 넘어왔다. 그리하여 신문들은 많은 이윤을 얻어 안정된 사업으로의 기반을 굳힐 수 있었다.

1872 년부터 1914 년까지의 기간을 보통 뉴 · 저널리즘시대(협의로는 Pulitzer 의 전성시대)라 부르고, 특히 선정주의를 과도하게 강조한 1892 년 이후를 옐로우 ·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시대라고 부른다. 뉴 · 저널리즘은 과거에 기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정당, 정국 등의 권력기관의 부정부패에 대한 폭로와 사회복지의 진흥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신문제작에서부터 본격화 되었다. 뉴욕 · 타임즈의 반 Tweed Ring 투쟁,²²⁾ 시카고·트리블의 제빙사업독점에 대한 반대투쟁, 레슬리 · 위클리(Leslies Weekly)의 오염우유에 대한 투쟁²³⁾ 등은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나. 플리처와 허스트의 신문경쟁

황색신문시대의 서막을 연 사람은 조셉 · 풀리처(Joseph Pulitzer)이다. St. Louis Post-Dispatch 로 성공을 거둔 그는 1883년 5월 9일 뉴욕에서 월드(World)를 창간하였다. 창간 초에는 2만에 불과했던 발행부수가 그 다음해에는 10만부로 늘어났고, 1886년에는 25만부, 1892년에는 37만 4천부로 늘어났다. 월드가 성공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²⁴⁾이 있지만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센세이셔널리즘에 가미된 뉴스 보도정책 이었다. 즉 기자들을 범죄자, 정신병자 또는 관리 등으로 위장 시켜 병원, 교도소, 정신병자 수용소 또는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그 기관들의 실상과 부정부패, 비리 등을 폭로하거나 기자들의 체험을 실감 있게 기사화 시킨 것이다.²⁵⁾

월드의 센세이셔널리즘은 동시대의 많은 사람들로 부터 비난을 받았지만 그 수법은 다른 신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 소위 뉴 · 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사조를 낳기에 이르렀다.

그 가운데서도 1895년 11월 7일 허스트(William Randolph Hearst)의 손으로 넘어간 뉴욕 · 모닝 · 저널(New York Morning Journal)은 월드와 맞수가 되는 대표적인 황색신문이었다. 허스트는 첫 호부터 풍부한 사진과 삽화, 강조적인 범죄기사, 재해, 추문기사, 각종 스캔들, 자유주의적 피쳐 기사 등 선정적인 기사로 지면을 가득 채웠다. 월드와 조금도 바를 바 없는 신문이 뉴욕에 또 하나 생겨난 셈이 되었다.

얼마 후 저널이 월드를 능가하게 되자 풀리처와 허스트는 본격적인 신문경쟁을 하게 되었다. 그 경쟁은 우연치 않게도 일요일판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1896년 1월 허스트가 월드의 일요일판 진용(우두머리는 Morrill Goddard)을 모두 매수하여 저널로 옮기게 한 후 월드의 만화를 모방하여 「American Humorist」란 제목의 만화를 부록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선데이 · 월드(Sunday World)의 「Hogan's Alley」라는 만화보다 인기가 더 좋았다. 원래 선데이 · 월드의 만화는 Richard F. Outcault 가 1889년부터 부정기적으로(후에는 정기적으로 연재) 연재하고 있었는데 그 주인공의 이름은 옐로우 · 키드(The Yellow Kid)였다. 그런데 Outcault 도 Goddard 와 함께 저널로 옮겨가서 주인공을 역시 같은 The Yellow Kid 로 하여 만화를 그렸다. 이에 화가 난 풀리처는 선지의 Arthur Brisbane 을 초빙하여 저널과 경쟁을 벌였다. 그리고 만화는 George B. Luks 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그리게 하였다. 그 결과 뉴욕에서는 두개의 「노란 꼬마」의 만화를 보게 되었다.

이러한 황색신문의 경쟁은 1895년 3월의 쿠바폭동사건과 98년 4월에 발생한 미국과 스페인 전쟁을 계기로 하여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다.²⁶⁾ 이 중에서도 허스트의 활동은 대단했고, 신문부수의 증가를 위해 전쟁까지 일으키게 한 그의 선정적 신문활동은 지금까지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의 호전적이고 선정적인 신문활동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쿠바폭동이 계속되던 1897년 초 허스트는 삽화가인 Frederic Remington 을 쿠바에 파견하여 취재케 하였다. 레밍톤은 쿠바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소문과는 달리 평온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조용함, 충돌 없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음. 귀사 요망」이라는 전문을 허스트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는 「그곳에 머무르시오. 당신은 삽화만 그리면 됨, 전쟁기사는 내가 마련하겠음.」이라는 답신을 보냈다.²⁷⁾

그는 또 특종을 얻기 위해 같은 해 여름 Evangelina Cisneros(당시 주미 쿠바망명정부 대통령의 딸)양의 사건조작 및 미국 맥킨리 대통령을 『저급의 정치인』이라고 인용 보도하여 주전론을 폈는가 하면²⁸⁾ 1898년 2월에 발생한 미국 전함 메인(Maine) 호의 침몰사건을 확인도 하지않은 채 「메인 호의 침몰은 적의 소행」이라고 단정 보도하여 미국 국민들을 전쟁에 참여토록 흥분시켰다. 저널만이 그린 것은 아니었다. 월드를 비롯한 황색신문들이 거의 모두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그 결과 미국은 그 해 4월 스페인과 전쟁을 벌였다. 이 전쟁에 각 신문과 잡지사 등에서 약 500여명의 기자들이 종군기자로 활약했는데, 이것은 남북전쟁당시의 종군기자 수보다 더 많은 것이었다. 어떤 사가들은 만일 선정적인 신문들이 없었더라면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은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슬회하고 있다.²⁹⁾

황색신문들이 이처럼 성추문과 범죄기사 및 허위기사를 남발하자 일부의 도덕주의자들은 신문의 사회적 공해성을 들어 불매동맹을 벌였으며, 또 미군 당국은 1898년 여름부터 검열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저널과 월드는 물론 다른 황색신문들도 그 발행부수는 계속 증가 일로의 현상을 보였다.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 발발 전에 저널과 월드는 매일 100만부를 찍어냈으나 전쟁 발발 수주동안은 150만부로 꺾충 뛰었다. 그 해 8월 전쟁이 끝난 후에도 부수는 100만부를 유지했다고 하니 당시 신문의 센세이셔널리즘의 위력이 얼마나 컸던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다. 황색신문의 센세이셔널리즘

황색신문 시대의 설세이셔널리즘은 연가신문시대의 그것과 별 차이는 없었다. 다른 점이 있었다면 신문편집과 사진 및 인쇄시설이 과거보다 발전되었기 때문에 선정적인 요소가 더 뛰어나게 부각되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황색신문을 선정주의적신문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황색신문은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센세이셔널리즘은 범죄뉴스, 스캔들과 가십, 이혼과 성문제, 그리고 재앙과 스포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황색신문은 상기한 선정주의적 신문 요소에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특성을 가미시켜 독특한 하나의 신문풍을 만들었다.

첫째 특대표제(scare-heads), 즉 비교적 중요하지도 않은 뉴스를 과도하게 큰 활자를 사용, 시커멓거나 붉게 인쇄하여 독자를 흥분 시키고, 전지면에 거짓의 냄새가 나게 하는 방법.

둘째 중요하지도 않은 사진들의 과대한 남용과 허위적이고 도발적인 사진의 오용.

셋째 가짜 인터뷰 및 허위기사, 오도된 표제, 의사적 과학기사, 거짓말 지식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조작적이고 기만 적인 기사의 게재.

넷째 색채만화와 천박한 기사로 가득 채운 일요판 부록 발간.

다섯째 사증적 낙오자들에 대한 과시적 동정과 대중들이 고통 받는 악습 제거 캠페인 전개.

위에 열거한 것 가운데 조작적이고 허위적인 기사의 게재 등 몇 가지는 기괴하고 타락한 신문의 양상을 보여줘 그 후의 신문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전단표제와 풍부한 사진의 사용, 일요판 부록 발간, 취재뉴스의 특이성과 차원 높은 사설 등은 현대신문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1896 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황색신문은 1899~1900 년대에 그 전성기를 이루어 Deles F. Wilcox 의 연구에 의하면 1900 년에 21 개의 대도시 가운데 3 분의 1 이 황색신문이었다고 한다.³¹⁾ 이런 풍의 신문들은 1901 년을 고비로 그 열기가 식어가고 1910 년 경에는 고급지들에게 그 위치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

(3) 재즈 신문시대 ³²⁾

가. 재즈신문 등장 배경

신문의 새로운 센세이셔널리즘은 제 1 차 세계대전의 종말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엽기신문이 등장했던 1833 년과 같이 플리처와 허스트의 싸움이 최고조에 달했던 1897 년경은 선정주의적인 기사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적절한 시기였다. 이 당시에는 이러한 기사를 좋아하는 독자들이 많았었다. 제 2 차 세계대전 후에도 그 양상은 비슷했다. 그리하여 1919 년부터 1926 년까지 7 년 사이에 뉴욕에는 3 개의 새로운 신문이 창간되었는데, 이들 신문은 기존 일간신문에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150 만부 이상을 발간할 수 있었다. 이 신문들은 전형적인 선정주의 신문들이었지만 ① 타블로이드판형의 지면과 ② 풍부한 사진의 사용 ③ 간결하고, 축약적이며, 생기있는 기사문체를 사용하고있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1920년 이후 10년간을 보통 재즈신문시대라고 부른다. 재즈란 말은 원래 음악에서 나온 말로 전통적이고 본격적이 아닌 난잡하고 함부로 된 것을 의미한다. 약간 광기 있고 자유분방한 그리면서도 활기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당시 신문의 양상을 본떠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 같다. 또 이 시대의 신문을 타블로이드 신문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 판형을 본떠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하튼 간에 이 당시에는 신문뿐 아니라 잡지와 방송계에서도 해설보도의 새 기법이 크게 강조되었다. 1919년 이후 뉴욕에서 타블로이드 신문이 나타나 성공을 거둔 것은 신문계에서는 절대로 이상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소형신문은 19세기 중엽 이전 신문이 많지 않았던 시절에 이미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1873년부터 1889년까지 뉴욕에서 발행됐던 데일리·그래픽(Daily Graphic)과 1891년의 데일리·컨티넨트(Daily Continent)도 타블로이드형 신문이지만 선정주의적인 신문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시대의 타블로이드 신문은 영국에서 수입되었다. 영국 신문들이 범죄와 법정기사를 취급하면서 선정주의가 무엇인가를 1833년경에 미국의 엽기신문 기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타블로이드 신문도 영국의 Northcliffe 경(Alfred C. Harmsworth)이 미국에 처음 소개하였다. Harmsworth는 우연한 기회에 폴리처에게 타블로이드 신문제작을 권유했던 바, 1901년 1월 1일자 월드를 타블로이드로 만들었다. 그는 이 신문을 『20세기의 신문』이라고 칭찬했고, 뉴욕 시민들도 호평을 했으나 월드는 타블로이드형을 단 1회만 발행하고 종전대로 대형신문으로 제작되었다. 그 후 미국에서는 잠잠했으나 영국에서는 계속 발전하였다. 즉 영국에서는 Harmsworth가 1903년에 데일리·미러(Daily Mirror)를 창간하여 최초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신문은 처음에는 여성을 상대로 점잖게 신문을 만들었으나 곧 편집방침을 바꿔 가격을 반페니로 인하하고, 내용을 선정적이고 흥미있는 오락기사로 가득 채웠다. 1909년경 발행부수는 100만부를 웃돌았다. 데일리·스케치(Daily Sketch)와 데일리·그래픽(Daily Graphic)이 곧 뒤를 따랐다. 제1차 세계대전 종결 후 미국 신문계는 이러한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의 성공을 본받아 본격적인 타블로이드 신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나. 재즈신문의 센세이셔널리즘

미국에서 나온 최초의 타블로이드 신문은 1919년 6월 26일에 Robert R. McCormick과 Joseph M. Patterson이 창간한 뉴욕·일러스트레이터드·데일리·뉴스(New York Illustrated Daily News, 후에 New York Daily News로 개제)였다. 첫 페이지에 미국을 방문하기로 되어있는 영국 Wales 왕자의 사진을 크게 실고, 또 다른 뉴스사진과 대중적 피이처 기사를 가득 실었다. 그리고 판촉방법의 하나로서 미인선발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그리하여 뉴욕·타임즈에는 「SEE NEW YORK'S MOST BEAUTIFUL GIRLS EVERY MORNING IN THE ILLUSTRATED DAILY NEWS)라는 내용의 전면광고를 내어 독자들의 구미를 끌어당겼다. 이 당시만 해도 뉴욕의 신문 기자들은 데이가 선을 처음 창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타블로이드 신문의 위력을 몰랐다. 그러나 Carr Van Anda 같은 일부 기자들은 이 신문이 선정주의와 오락 그리고 사진에 중점을 두는 신문으로서 전망이 있다는 것을 예견하였다. 전후의 신문 독자들에게 이 같은 신문은 곧 인기를 끌게 되었다. 그 결과 이 신문은 1922년에는 발행부수가 40만부, 24년에는 75만부, 29년에는 132만부를 돌파했고, 제 2차 세계대전 전에는 200만부를 돌파했다.³³⁾

보잘 것 없었던 데일리·뉴스가 성공을 거두자 허스트는 1924년에 뉴욕 데일리·미러를, 그리고 3개월 뒤에는 Bernarr Macfadden이 데일리·그래픽을 창간하여 데일리·뉴스와 「저속한 선정주의신문 경쟁」(gutter journalism)을 벌이기 시작했다.³⁴⁾ 이 중에서도 데일리·그래픽은 가장 저속하여 선정주의 색채를 띤 신문으로서 그 악명이 높았다. 이 신문은 황색신문시대의 수법보다도 더 야비한 「고백기사기법(confession story technique)」을 이용하여 선정주의의 극치를 이루었다. 이들 신문이 취급했던 센세이셔널한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1922년 뉴저지 교외에서 Hall이라는 전도사와 성가대원 밀즈 부인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경찰은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데일리·미러는 증인의 자격으로 법정에서 출두하는 Hall 부인을 혐의가 있는 「더러운 계집(pig woman)」으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자살로 판명되었고, 데일리·미러는 Hall 씨 부인으로부터 1,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였다.

두 번째는 1927년 봄에 일어난 살인사건을 보도한 것이다. Albert Snyder라는 사람이 그의 부인과 정부 Judd Gray에 의해 살해당하였다. 1928년 1월에 Snyder 부인이 전기의자 사형을 당하였다. 데일리·뉴스는 기자가 발목에 몰래 감춰 갖고 형장에 들어간 카메라로 찍은 전기의자사형 집행 장면을 1면에 대문짝만하게 게재하였다. 사회 각계에서 비난의 소리가 높았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그래픽은 한술 더 떠서 이 사건 집행 전에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내일 아침 그래픽을 꼭 읽으십시오! 스릴있고 깜작 놀랄만한 사건보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직하는 Ruth Snyder의 마지막 생각을 나타내며 가슴을 꿰뚫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 말하는 한 여인의 생각! 최후에 남기는 말을! 내일아침 Graphic을 기대하십시오!」³⁵⁾

세 번째의 사건은 1927년에 있었던 외설적인 기사 보도였다. 그라픽은 Edward Browning 과 Peaches 라는 연인들이 한 파티에서 있었던 일을 너무 외설적으로 다루어 교회와 학교기관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던 일이다. 이 일로 인해 그라픽은 데일리 · 포르노 · 그라픽(Daily Porno Graphic)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었을 뿐 아니라 불매운동까지 당하였다.

미러와 그라픽은 이처럼 극성스럽게 선정주의적인 신문을 만들었으나 결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미러는 1928년에 다른 사람에게 팔렸고, 그라픽은 1932년에 적자운영으로 문을 닫았다.

재즈신문도 황색신문과 마찬가지로 성관계, 범죄, 추문, 외설, 재판관계 기사 등에 주력하면서 그 사건들을 선정적으로 대서특필하였다. 뿐 아니라 사진과 기사를 날조하고 허위보도를 빈번히 하여 타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수없이 침해하였다. 이러한 타블로이드 신문은 1930년대에 들어서자 독자들의 곁에서 떠나갔다.

III. 신문발전에서 센세이셔널리즘의 위치

위에서는 주로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센세이셔널리즘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았다. 183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의 100년 동안에 센세이셔널리즘이 성행했던 시기의 공통된 특징을 찾아보면 우선 신문경영의 부진을 들 수가 있다. 이의 탈피를 위한 돌파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였다. 산업혁명과 이민의 급증으로 많은 대중독자들이 나타났으나 형식과 내용이 딱딱하고, 표제는 불친절하고 신문이 풍기는 인상이 구태의연한 종전의 신문내용과 편집방식으로서 독자들의 뉴스추구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가 없었다. 각 신문들이 판매부수의 신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생각해 낸 것이 바로 센세이셔널리즘의 채택이었다.

센세이셔널리즘의 속성은 신문의 발생과 더불어 탄생하였으나 그것이 신문 발전사에서 문제된 것은 부수확장을 위해 자극적으로 활용된 데서 비롯된다. 선정주의는 신문발전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선정주의적인 신문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징들을 갖고 있었다.

첫째 인간흥미 위주의 기사를 게재하여 독자들의 인기에 영합했으며

둘째 공정하고 책임 있는 뉴스보도보다는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범죄, 성관계, 추문,비리 등의 폭로적인 기사발굴에 치중했으며³⁶⁾

셋째 전기의자 사형이나 살인장면 또는 관능적인 여자사진과 같은 자극적인 사진들을 풍부하게 실었으며

넷째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 날조적이고 허위적인 기사와 사진을 게재했으며

다섯째 신문값이 저렴했으며

여섯째 지식수준이 높은 상류층의 사람이 아니라 지식수준이 낮은 노동자와 부녀자 및 중산층이 대상 독자였다.

이러한 선정주의적 신문은 경영이 부진했던 신문을 흑자로 전환시켜 훗날 신문을 대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또한 풍부한 사진과 짧고 산뜻하며 활기 있는 기사 그리고 취재의 영역을 넓혀 다이나믹한 편집을 하는 등 신문제작방법 면에서도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주었다. 그러나 선정주의가 지나쳐 사생활을 침해하는가 하면 명예훼손을 유발하는 행위가 너무나 빈번하여 사회의 물의를 일으켰음은 물론신문제작의 악습을 남겨주기도 했다. 1940 년대에 들어서서 영국의 왕립신문위원회와 미국의 신문자유위원회가 설치되어 책임 있고 공정한 신문활동을 요청하게 된 것도 그 뿌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미국의 센세이셔널리즘은 1830 년~1930 년대만 존재한 것은 결코 아니다. 지면의 제한으로 더 이상 언급할 수 없지만 그 이후에도 센세이셔널한 신문현상은 수없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오늘날의 신문과 방송 등에서도 센세이셔널한 현상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다만 그런 현상들이 우리 눈에 익숙해져 있고 또 그것이 세련되어 있다는 것이 과거와 다를 뿐이다 우리가 잘 아는 워터게이트 사건의 보도나 워싱턴 · 포스트(Washington Post)의 『지미의 세계』 같은 기사들이 그런 좋은 본보기들이다.

<주>

1) Frank L. Mott, American Journalism(The MacMillan Company, 1969), p.442.

2) Ibid.

3) Edwin Emery and Michael Emery, The Press and America (New Jersey ; Prentice- Hall, Inc, 1978), p.119.

4) Frank L. Mott, op. cit., p.10.

5) Ibid., pp.11 ~12.

6) The Virginia Quarterly Review(The University of Virginia,1982), Michael Nelson, 평편보도식 저널리즘 『계간 다이알로그』 13 호(1983/겨울) (서울 :주한미국문화공보원, 1983) , pp.65~69.

7) Edwin Emery and Michael Emery, op. cit., p.119.

8) Frank L. Mott, op. cit., pp.222~224.

9) Edwin Emery and Michael Emery, up. cit., pp.120~ 121.

10) Frank L. Mott, op. cit., pp.223~224.

11) New York Sun, July 4,1834.

12) 임근수, 『신간발달사』 (서울 : 정음사, 1967) , pp. 260~261.

13) Herald, February 28, 1837. Frank L. Mott, op. cit., p.229.

14) Sidney Kobre, Development of American Journalism, (Iowa; WM.C. Brown Company Publishers,1972), p.234.

15) Ibid.

16) Ibid.

17) Frank L. Mott, op. cit., pp.236~237.

18) George N. Cordon,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 A History of Mass Media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Hastings House, 1977), pp.52~ 53.

19) Edwin Emery and Michael Emery, op. cit., p.129.

20) George N. Cordon, op. cit., pp.53~54.

21) W. Phillips Davison, et al., Mass Media Systems & Effect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1976), pp.12~13.

22) Frank L. Mott op. cit., pp.382~383.

23) Ibid.,pp.378 ~379.

24) 이광재, "대중신간이 신관발암에 미친 영향" 『경희대학교 논문집』 제 12 집 인지 사회 경제편, 1983. pp. 175~ 176.

25) Ibid. p.441.

26) Robert Desmond, The Information Process (Iowa City: University of Iowa Press, 1978),p.389.

27) Frank L. Mott, op. cit., pp.529.

28) Ibid., pp.529 ~530.

29) Ibid., p.527.

30) Ibid., p.539.

31) Ibid.

32) Emery, op. cit., pp.363~392.

33) Ibid., p.365.

34) Mott, op. cit., p.609.

35) Emery. op. cit., p.367.

36) 미국뿐 아니라 영국의 신문들도 독자들의 구미를 맞추기 위해서 성 스캔들과 같은 선정적인 뉴스를 얼마나 많이 취급했는가를 <표 1>이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즉 1850년대 당시의 대표적인 일요신문이었던 Reynold's 와 Lloyd's 그리고 Weekly Times 의 선정적인 기사는 1854년에 각각 20%, 22%, 23.2%이던 것이 32년 후인 1886년에는 37%, 51.5%, 28%로 늘어나 선정주의 기사가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George Boyce, at at. (ed) , Newspaper History, (London: CONSTABLE, 1978), p.256.]

- 경희대학교대학원 신문방송학과(정치학박사)미국 미주리대학교 신문대학원

- 저술 : 「매스컴의 자유와 책임」, 「유럽매스컴 발달사, 」 매스컴과 사회」 외 다수

- 현재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